별첨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세계, 10년 후 트렌드는?', 2015년4월)

가. 직업세계, 10년 후 트렌드는?

고용정보원은 〈2015 한국직업전망〉의 일자리 전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직업세계에 나타날 '10대 트렌드'를 분석했다.

1) 엔지니어 및 전문직의 고용 증가 및 전문화 : 로봇, 의료 · 정밀기기, 3D프린터 등 첨단 분야의 기술 · 제품개발 경쟁, 특수산업용기계 및 금속공작 · 가공기계 분야 등의 글로벌화와 시장규모 성장 으로 관련 엔지니어 및 전문직이 전문화 · 세분화 될 것이며,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예시: 기계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생명과학연구원,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무역사무원, 행사기획자, 손해사정사 등

2) 환경 및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 환경개선 및 생태복원,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기업과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 예시: 환경공학기술자, 재활용처리 및 소각로조작원 등

3) 창조산업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 생활수준 향상, 여가문화 수요 증가, 한류 확산 등으로 디자인, 방송, 영화, 공연, 게임, 애니메이션 등 창조산업 관련 직종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 예시: 감독 및 연출자,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웹 및 멀티미디어디자이너 등

4) 미용 및 건강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및 전문화 : 외모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미용 · 건강 관련 직종의 전문화 및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예시: 미용사,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등

5) 안전과 치안, 보안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 안전과 치안,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 예시: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컴퓨터보안전문가, 유치원교사 등

6) 개인서비스 및 반려동물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및 전문화 : 맞벌이 가정 및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서비스와 반려동물 관련 직종이 전문화되고 고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 예시: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청소원 및 가사도우미, 애완동물미용사 등

7)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 : 낮은 출산율에 따른 학령인구(만 6~21세) 감소로 교수와 교사 고용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인구고령화로 의료 · 복지 수요가 늘어 관련 직종의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 예시: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이상 감소), 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 장례지도사(이상 증가)

8) 온라인 거래 및 교류 방식의 확산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 :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거래 및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직업들 간 고용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예시: 컴퓨터보안전문가, 웹 및 멀티미디어기획 및 개발자 등(이상 증가), 상품판매원, 상품중개인, 중권 및 외환중개인 등(이상 감소)

9)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른 생산기능직의 고용 감소 : 기계화 및 자동화 설비의 증가, 기술의 대중화 등으로 생산기능직 등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 예시: 단조원, 주조원, 도장원 및 도금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식품제조기계조작원, 인쇄 및 사진현상관련 조작원, 사진가 등

10) 3D 직종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취업기피로 인력난 가중 : 건설기능직 등 힘들고 위험한 3D 직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기피 및 근로자의 고령화로 내국인 종사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 예시: 철골공, 철근공 및 콘크리트공, 건축목공, 조적공 및 석공, 미장공 및 방수공, 도배공 등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붙 임】〈2015 한국직업전망〉의 직업별 고용전망

※ 〈고용전망 방법〉

'한국직업전망을 위한 정성적 전망 조사(2014)'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재직자 조사(2014)'의 샘플을 통합한 데이터(1개 직업당 샘플 수는 최소 40개 이상 확보) 결과값(5점 척도)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4)의 10년(2013~2023) 전망 증감률(증감률 평균을 고려하여 −2% 미만은 감소, −2%~−1%는 다소 감소, −1%~1%는 유지, 1%~2%는 다소 증가, 2% 초과는 증가로 구분)을 비교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용 전망	직업(196개)			
증가 (13)	행사기획자	임상심리사	상담전문가	홍보도우미및판촉원
	법률사무원	간병인	직업상담사및취업알선원	환경공학기술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택배원	산업안전및위험관리원
	물리및작업치료사			
다소 증가 (83)	노무사	법무사	번역가	메이크업아티스트및분장사
	경영및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변리사	통역사	애완동물미용사
	회계사	경찰관	사서및기록물관리사	결혼상담원및웨딩플래너
	세무사	소방관	만화가및애니메이터	장례지도사
	관세사	교도관	음악가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
	광고및홍보전문가	의사	대중가수및성악가	항공기객실승무원
	상품기획전문가(머천다이저,MD)	한의사	무용가및안무가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강사
	경영지원사무원	치과의사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기계공학기술자
	무역사무원	수의사	감독및연출자	전자공학기술자
	회계및경리사무원	약사및한약사	배우및모델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안내및접수사무원	치과위생사	아나운서및리포터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임상병리사	연예인및스포츠매니저	컴퓨터보안전문가
	손해사정사	방사선사	항공기조종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생명과학연구원	치과기공사	관제사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인문과학연구원	안경사	화물자동차운전원	웹및멀티미디어기획및개발자
	사회과학연구원	영양사	영업원	방송및통신장비설치수리원
	특수학교교사	의무기록사	경호원	비파괴검사원
	유치원교사	응급구조사	청원경찰	재활용처리및소각로조작원(환경관련장치조작원)
	학원강사및학습지교사	간호조무사	청소원및가사도우미	공예원
	판사및검사	시민단체활동가	미용사(이용사및미용사)	전통건물건축원(건축목공및전통건물건축원)
	변호사	보육교사	피부미용사및체형관리사	

고용 전망	직업(196개)			
유지 (68)	기업고위임원	패션디자이너	토목공학기술자	전기및전자기기설치수리원
	감정평가전문가	인테리어디자이너	조경기술자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조사전문가	시각디자이너	교통설계전문가(도시계획및교통설계전문가)	통신공학기술자
	생산관련사무원	캐드원	지적및측량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운송사무원	영화연극및방송제작장비기사	단열공	데이터베이스설계구축및관리기술자
	비서	항해사	공업배관공(배관공)	정보시스템운영자
	투자및신용분석가	철도및전동차기관사	건설기계운전원	통신장비및방송송출장비기사
	자산운용가	버스운전원	단순노무종사자	주방장및조리사
	금융및보험관련사무원	물품이동장비조작원(크레인및지게차운전원)	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바텐더
	보험관련영업원	부동산중개인	운송장비정비원	식품공학기술자및연구원
	작가	텔레마케터	자동차정비원	제과제빵사
	출판물전문가	계산원및매표원	금형및공작기계조작원	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
	큐레이터및문화재보존원	경비원	자동차및자동차부분품조립원	섬유공학기술자
	기자	세탁원및다림질원	제조공정부품조립원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환경관련장치조작원)
	미술가	경기감독및코치	재료공학기술자	악기제조원및조율사
	국악및전통예능인	운동선수	화학공학기술자	간판제작및설치원
	제품디자이너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임업관련종사자
다소 감소 (32)	증권및외환중개인	이용사(이용사및미용사)	건설배관공(배관공)	비금속광물가공장치조작원
	대학교수	도시계획전문가(도시계획및교통설계전문가)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	전공
	중등학교교사	철골공	판금원및제관원	식품제조기계조작원
	초등학교교사	철근공및콘크리트공	단조원	인쇄및사진현상관련조작원
	사진가	조적공및석공	주조원	귀금속및보석세공원
	택시운전원	건축목공(건축목공및전통건물건축원)	용접원	작물재배종사자
	상품중개인및경매사	미장공및방수공	도장원및도금원	낙농및사육관련종사자
	상품판매원	도배공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어업관련종사자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나.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 향후 10년 간 대졸 · 전문대졸 인력 792천명 초과공급 전망

1)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결과

- **전공별 인력공급 전망**
  - (인구)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나, 청년층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모두 감소

(단위: 천명)

			2014	2019P	2024P	증가분		
						'14~'19	'19~'24	'14~'24
생산가능인구	15세 이상		42,513	43,649	44,409	1,136	761	1,896
		15~29세	9,503	8,839	7,857	–664	–982	–1,646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6,536	28,166	29,107	1,630	941	2,571
		15~29세	4,255	4,417	4,173	162	–244	–81

  - (전공별 인력공급)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 전문대 졸업생은 계속 감소하며, 실업상태 1년 미만의 단기 실업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단위: 천명)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	졸업생	단기 실업*	인력공급	졸업생	단기 실업	인력 공급	졸업생	단기 실업
대 학	합계	3,021	2,896	125	1,678	1,554	125	1,486	1,342	144
	인문	356	339	16	199	183	16	176	157	19
	사회	840	797	43	480	437	43	407	360	47
	예체능	352	334	17	195	177	17	175	157	18
	사범	182	175	7	102	95	7	88	80	8
	자연	368	353	15	199	185	15	186	169	17
	공학	754	730	24	408	385	24	377	345	31
	의약	170	167	3	95	92	3	77	75	3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	졸업생	단기 실업*	인력공급	졸업생	단기 실업	인력 공급	졸업생	단기 실업
전문대	합계	1,726	1,635	92	974	882	92	851	752	98
	인문	59	53	5	35	29	5	30	24	5
	사회	487	465	22	275	253	22	236	212	24
	예체능	288	277	11	160	149	11	140	127	13
	사범	92	87	4	51	47	4	45	40	4
	자연	130	117	12	76	64	12	66	53	13
	공학	395	364	31	228	197	31	201	168	33
	의약	276	271	6	148	143	6	133	128	6

※ 단기실업자는 전망기간 첫 해의 단기실업자로 정의, 즉 '14~'19년, '14~'24년 단기실업자는 모두 전망기간 첫 해인 '14년 단기실업자임(네덜란드 ROA 모형), 따라서 '14~24년의 인력공급은 '14~'19년, '19~'24년의 합과는 다름

〈참 고〉 학력별 졸업생수 변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졸업생수도 꾸준히 감소하며, 고등학교 졸업생도 큰 폭으로 감소 ('14년 63만명→'24년 40만명: –23만명)

⇒ 현재 대학정원 약 56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약 16만명 많을 것으로 예상

〈학력별 졸업생수 전망(천명)〉

	2014	2019P	2024P	증가분		
				'14~'19	'19~'24	'14~'24
고등학교	631	555	406	–76	–150	–225
전문대 이상	601	575	459	–26	–117	–143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 전공별 인력수요 전망

• (전공별 인력수요) 완만한 경제성장 등으로 인력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전공별로는 공학, 사회계열의 수요가 특히 크게 발생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범계열은 적게 발생

(단위: 천명)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수요	성장수요	대체수요	인력수요	성장수요	대체수요	인력수요	성장수요	대체수요
대 학	합계	2,699	1,954	745	1,360	1,009	351	1,339	944	395
	인문	255	153	101	134	85	48	121	68	53
	사회	623	398	225	309	202	107	314	196	117
	예체능	305	242	63	151	123	29	154	119	35
	사범	62	–11	73	64	29	36	–3	–40	37
	자연	312	189	123	145	87	59	167	102	65
	공학	969	837	133	466	405	60	504	431	73
	의약	173	146	27	90	79	12	83	67	16
전문대	합계	1,255	708	547	568	304	263	687	404	283
	인문	77	26	51	37	12	25	39	13	26
	사회	260	119	141	108	39	69	152	80	72
	예체능	207	142	64	99	70	30	107	73	35
	사범	69	36	33	27	11	16	42	26	17
	자연	–9	–21	12	–7	–13	6	–2	–8	6
	공학	438	328	110	204	151	52	234	177	57
	의약	214	78	136	99	35	65	115	43	71

• 전공별 인력 수급차 전망

• 향후 10년간 대학 · 전문대 졸업생은 줄어들고, 구인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급차는 줄어들 것이나, 여전히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단위: 천명)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대 학	3,021	2,699	321	1,678	1,360	318	1,486	1,339	147
전문대	1,726	1,255	471	974	568	406	851	687	163

• 전공계열별로 보면, 대학의 공학계열 · 의약계열과 전문대의공학계열 · 인문계열에서만 인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그 외의 전공계열은 모두 인력 초과공급 전망

– 특히 대학의 사회계열 · 사범계열과 전문대의 사회계열 · 자연계열의 초과공급이 클 것으로 예상

(단위: 천명)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대학	인문	356	255	101	199	134	65	176	121	55
	사회	840	623	217	480	309	171	407	314	93
	예체능	352	305	46	195	151	43	175	154	21
	사범	182	62	120	102	64	37	88	–3	91
	자연	368	312	56	199	145	54	186	167	19
	공학	754	969	–215	408	466	–57	377	504	–127
	의약	170	173	–4	95	90	5	77	83	–5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전문대	인문	59	77	–18	35	37	–3	30	39	–10
	사회	487	260	228	275	108	167	236	152	85
	예체능	288	207	81	160	99	61	140	107	33
	사범	92	69	22	51	27	24	45	42	2
	자연	130	–9	139	76	–7	84	66	–2	68
	공학	395	438	–43	228	204	24	201	234	–33
	의약	276	214	62	148	99	49	133	115	19

〈참 고〉 전문대 이상 학력의 의약계열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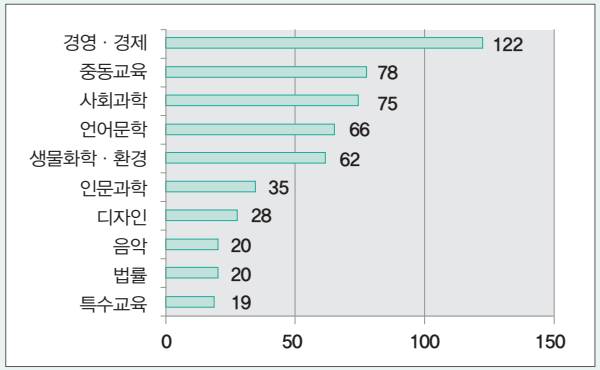
• 간호계열의 4년제 통폐합,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의약계열을 전문대 이상 학력으로 통합하여 보면, 대학의 결과와 수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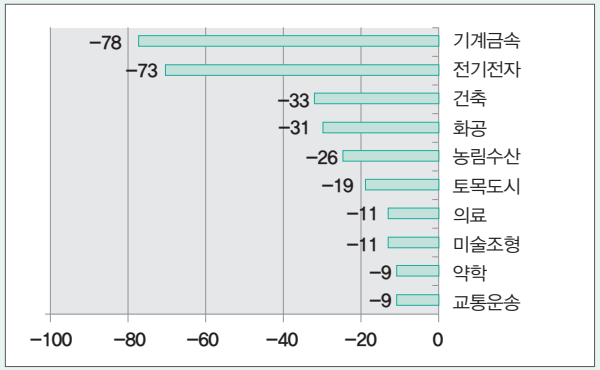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의약계열	554	477	77	301	238	62	262	239	24
의료	94	116	–22	52	59	–8	43	57	–13
간호	175	149	26	93	87	6	85	62	22
약학	21	35	–14	12	19	–7	9	16	–7
치료보건	264	177	87	144	73	71	125	104	22

• **대학의 세부 전공별로는 경영 · 경제, 중등교육, 사회과학 등은 초과공급, 기계 · 금속, 전기 · 전자, 건축 등은 초과수요 전망**

〈대학–초과공급 상위10개 전공(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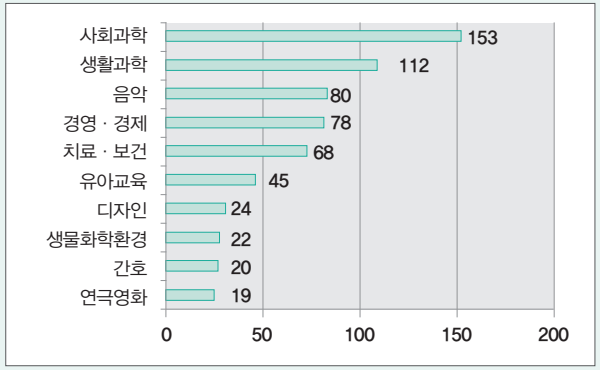


〈대학–초과수요 상위 10개 전공(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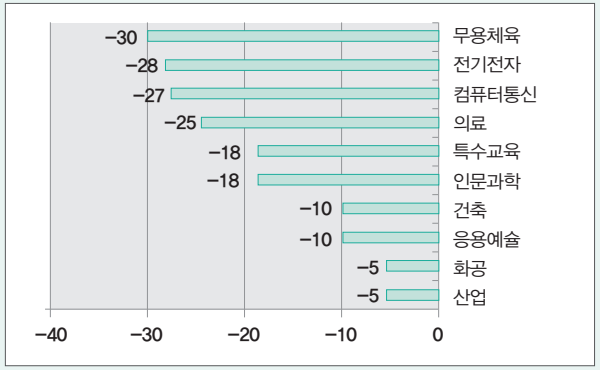


• **전문대 세부 전공별로는 사회과학, 생활과학, 음악 등은 초과공급, 무용 · 체육, 전기 · 전자, 컴퓨터 · 통신 등은 초과수요 전망**

〈전문대–초과공급 상위10개 전공(천명)〉



〈전문대–초과수요 상위 10개 전공(천명)〉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및 유의점

• 정책적 시사점

- 향후 상당기간(10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청년실업 해소 대책,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중장년 인력 활용 문제 등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 공공 · 민간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노동시장 정보 확산 등 인력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

-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참고한 차별화 된 미래인재양성정책 추진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교 졸업생 대비 대학 정원의 초과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
  – 전공별 수급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혁, 정원조정 노력 지속

-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진로지도, 전공 선택 등에 참고 가능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 국내 인력 활용 문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정비 필요
  –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탁월한 지식 · 기술을 갖춘 외국 인재의 도입 · 활용은 지원하되,
  – 국내 인력과 일자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관련 유의점

●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활용할 필요

- 본 전망은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활용되는 대표 모형으로 네덜란드의 ROA 모형을 이용했으나, 동 모형의 방법론 또는 기본 가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은 전망된 수치를 토대로 2차, 3차 전망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예측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 예) GDP전망 → 이를 토대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 산업별 취업자 전망 → 직업별 취업자 전망 → 전공별 취업자 전망 등

- 본 전망에 활용된 일부 통계자료는 시계열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좀 더 정확한 전망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지역별고용조사, 10년부터 조사)

- 현실적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거나 하향취업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해당 수요 · 공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 다만, 이러한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의 정성적 의견을 폭 넓게 수렴 · 반영했음
  * 하향취업, 전공–직업 불일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그것도 노동시장의 수급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해당 수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 대학 전공별 세분화된 인력수급전망은 금년에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통계기반 확충, 전망 방법론 보완 등 전망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 전공별 중분류 단위 전망 결과표

(출처 : 고용노동부, 「'14~'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2015년12월)

• (대학) 전공별 중분류 단위 전망

(단위: 천명)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언어 · 문학	234	168	66	132	85	47	117	83	33
인문과학	122	86	35	67	49	18	59	38	22
경영 · 경제	507	385	122	290	195	95	250	190	60
법률	75	55	20	42	28	14	35	27	8
사회과학	258	183	75	148	87	61	122	96	26
디자인	112	84	28	61	41	20	57	43	13
응용예술	45	49	–4	25	23	2	23	26	–4
무용 · 체육	87	77	10	49	39	10	43	39	5
미술 · 조형	33	44	–11	19	24	–5	16	20	–4
연극 · 영화	18	14	4	10	8	2	9	7	3
음악	57	36	20	31	18	14	27	19	8
교육일반	14	12	2	8	14	–6	7	–2	9
유아교육	28	16	12	15	15	1	14	1	13
특수교육	22	3	19	12	4	8	11	–1	12
초등교육	20	10	10	11	14	–2	9	–3	12
중등교육	98	20	78	55	18	37	47	2	45
농림 · 수산	15	41	–26	8	18	–10	8	22	–15
생물 · 화학 · 환경	183	120	62	98	56	42	91	64	26
생활과학	96	86	11	53	40	12	49	46	4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74	65	9	41	31	10	38	35	3
건축	79	111	–33	43	52	–9	40	59	–20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토목 · 도시	55	74	–19	29	35	–6	27	38	–11
교통 · 운송	33	42	–9	18	22	–3	16	20	–4
기계 · 금속	102	180	–78	56	86	–30	51	94	–43
전기 · 전자	126	198	–73	69	94	–25	63	104	–41
정밀 · 에너지	18	10	8	9	5	4	8	4	4
소재 · 재료	49	35	14	27	15	11	23	19	4
컴퓨터 · 통신	195	199	–4	102	96	6	100	103	–3
산업	33	34	–1	18	15	3	16	19	–3
화공	39	70	–31	21	36	–15	19	34	–15
기타	26	17	9	14	8	6	13	9	4
의료	27	39	–11	16	21	–5	12	18	–6
간호	72	66	6	39	35	4	34	31	3
약학	14	22	–9	8	12	–4	6	10	–5
치료 · 보건	57	47	10	32	22	9	26	24	2

• (전문대) 전공별 중분류 단위 전망

(단위: 천명)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언어 · 문학	53	53	0	31	27	5	27	26	0
인문과학	6	24	–18	3	11	–8	3	13	–10

참고 – 전공별 중분류 단위 전망 결과표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경영 · 경제	245	167	78	139	66	72	120	101	20
법률	2	5	–3	1	2	–1	1	3	–2
사회과학	240	87	153	135	40	96	115	48	67
디자인	109	85	24	63	43	20	53	42	11
응용예술	44	54	–10	25	24	1	22	30	–8
무용 · 체육	3	33	–30	2	15	–13	2	18	–16
미술 · 조형	10	11	–1	5	5	–0	5	6	–1
연극 · 영화	24	5	19	13	3	10	11	2	9
음악	98	17	80	53	9	44	46	8	38
교육일반	0	5	–4	0	2	–2	0	2	–2
유아교육	90	45	45	50	16	34	43	28	15
특수교육	2	20	–18	1	8	–7	1	12	–10
초등교육	0	0	0	0	0	0	0	0	–0
중등교육	0	0	0	0	0	0	0	0	–0
농림 · 수산	9	8	1	6	4	2	5	4	1
생물 · 화학 · 환경	19	–3	22	11	–2	13	9	–1	11
생활과학	99	–13	112	57	–8	66	50	–5	55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3	–1	4	2	–1	2	2	0	2
건축	39	49	–10	23	22	1	21	27	–6
토목 · 도시	23	29	–5	13	13	–0	12	15	–4
교통 · 운송	19	12	7	10	5	5	9	7	2
기계 · 금속	100	96	4	56	43	13	49	52	–3

	'14~'24년			'14~'19년			'19~'24년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인력 공급(A)	구인 인력 수요(B)	차이 (A-B)
전기 · 전자	60	88	-28	35	40	-5	31	48	-16
정밀 · 에너지	19	9	10	10	4	6	9	4	5
소재 · 재료	6	7	-1	3	3	-0	3	4	-0
컴퓨터 · 통신	100	127	-27	60	62	-1	51	65	-14
산업	0	5	-5	0	2	-2	0	3	-3
화공	4	9	-5	2	5	-3	2	4	-2
기타	26	8	18	14	3	11	13	4	9
의료	0	25	-25	0	12	-11	0	14	-14
간호	94	75	20	50	46	3	46	28	18
약학	0	0	0	0	0	0	0	0	0
치료 · 보건	182	114	68	99	42	57	87	72	15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출처: 고용노동부, 「신직업 추친 현황 및 육성계획」, 2015년 12월)

다. 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

– 청년 일자리, 新직업에서 찾자!

1) 제1차 新직업 육성계획 추진 현황

- **정부 육성 · 지원 신직업 추진 현황(정상 추진 23개, 진행상황 미흡 3개)**
  - 대부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복지사 등은 법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

주거복지사	– 주거기본법 제정('15.6월)으로 주거복지사 양성을 법제화 – 자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공인자격 "적합" 결정('15.11월)
BIM 디자이너	–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모든 사업에 BIM 적용예정('16년~)
연구실 안전전문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개정('14.12월)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자 규모별로 1~3명 의무지정('15.7.1 시행)
연구장비전문가	– 과학기술법 개정('15.6월)으로 현재 보유장비별 인력 확보 의무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 마련 중('16년 상반기 완료예정)

  - 다만, 정상추진 중이더라도 예산확보, 법률 제 · 개정 등 애로사항이 있으며, 일부 직업은 추진 계획 대비 진행상황이 미흡(3개)

주요 애로사항	보완계획
국가자격 신설 애로	– 관련법령 개정 및 자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지속 추진
직업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지원 필요	– 해당직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요창출 지원 방안 모색
전문인력 양성 · 배치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협조 요청(임신출산육아전문가) – 고용부의 훈련사업과의 연계 · 통합(감성인식기술전문가)
관계 부처 간 이견	– 국무조정실 주관 이견 조정 노력 지속(민간조사원)

-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 추진 현황(정상진행 8개, 지연 7개)**
  - 신직업에 대한 직업정보 제공 및 홍보, 신직업 특화훈련 과정 등을 통해 해당 직업에 대한 수요 ·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노년플래너, 주변환경정리전문가, 생활코지 등
    – 다만, 시장에서의 보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

지원 필요사항	보완계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시장에서의 변화,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교육과정 개설 지원 검토 (사이버평판관리자, 가정에코컨설턴트, 이혼플래너 등)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신직업 동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수요 창출 유도(신사업아이디어컨설턴트)

  - 일부 직업의 경우 직업에 대한 인식부족, 업역 갈등 등으로 민간시장에 정착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지연 7개)

주요 애로사항	보완계획
해당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 신직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기업컨시어지, 정신대화사, 병원아동생활전문가 등)
공인중개사와 업역 갈등 발생 우려로 자격 신설 무산	– 직업명칭을 변경하여 자격 신설 추진(매매주택연출가) *직업명에 '매매'라는 명칭으로 공인중개사와 업역 갈등 발생 우려가 있어 자격 신설이 무산됨

2) 제2차 新직업 육성계획

- **정부 육성 · 지원 신직업(13개)**
  -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직업들로 ①전문직업으로 정착 유도, ②시장수요 형성 및 인프라 구축, ③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추진
    ① (전문직업으로 정착 유도) 전문화 · 세분화되는 시장수요에 맞추어 기존 직무분야를 전문화하여 자격 · 교육과정 신설

미래 사회 전망 – 10년 후 한국 사회의 전망

직업명	추진계획
기업재난관리자	–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석 ·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약품규제 과학전문가	– 전문가 교육 · 인증 및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주택임대관리사	– 주택임대관리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전문협회 설립 지원
레저선박전문가	–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 추가 및 교육과정 확대
대체투자전문가	– 대체투자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해양플랜트 기본설계사	– 해외 엔지니어링 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

② (시장수요 형성 및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수요 형성, 법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민간의 직업 창출 유도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직업 창출 · 고용촉진 제도 마련, 관련 자격신설 등

직업명	추진계획
방재전문가	– 공공기관 중심으로 재난안전전문가 채용방안 마련 – 국가공인자격 신설 또는 외국 자격제도 인증 방안 검토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 콘텐츠 창작 공모전 등을 통한 창의적 인재 발굴 – 크리에이터 지원센터 확대, 글로벌 유통 및 사업화 지원
진로체험코디네이터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하여 직업 체험 기회 인프라 구축 – 기업 · 사업장의 일터제공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직무능력평가사	– 직무능력평가사 역할 · 직무 · 자격 등 제도화 방안 마련 – 직무능력평가 자격제도 신설 검토
3D프린팅매니저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3D프린터 보급 확대, '3D프린팅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 3D프린팅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홍보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품 · 관광지 홍보 프로젝트 추진 –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③ (중장기 검토과제) 근본적인 제도 변경 또는 기존 직업군 · 이해관계자 조정,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이 필요한 직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검토

직업명	추진계획
타투이스트	– 예술문신 시술자 관련 해외사례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 분석 – 의료인,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등과 제도화 방안 논의

• 민간시장 자생적 창출 신직업(4개)

• 민간시장의 자생적 창출에 필요한 법 · 제도적 기반 등이 구축되어 있어, 직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정착 · 확산 지원

직업명	시장전망
P2P대출전문가	–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16.1월), 정부의 핀테크 육성 노력 등으로 시장의 활성화 기대
의료관광 경영상담사	– '의료법' 개정('09.5월) 이후 외국인 환자 수가 빠른 성장세 기록,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 노력 등으로 인력수요 증가 전망
크루즈승무원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2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인력수요 증가 전망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저해하는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B2B 분야의 기술문서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들 수요도 점차 증가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 인문계 전공자들이 융합형 인재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

참고1 제2차 新직업 육성계획 세부내용

1. 정부육성 · 지원 신직업(13개)

1. 기업재난관리자(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Manager) 〈국민안전처〉

•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 활동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 (현황) 9 · 11 테러 이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많은 기업이 기업재난관리자를 채용

* 국민안전처에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 보급을 위해 교육 · 인증시험 실시('14)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재해경감 활동계획수립이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무하고 기업의 재난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7월 제정)

• (방안) 민간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재난 관리 활동 지원 확대

• 기업 재난관리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여 석 ·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확대

* '14년 인천대학교 선정 지원 완료 및 '15년 숭실대학교 선정, 매년 2억 원 지원(~18년)

• 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원 확대('15)

* ('14) 2개소 → ('15) 5개소 → ('16~) 지속적 확대 검토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세제지원,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시행('16~)

• (기대효과) 기업 재난관리 효과성 제고 및 관련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2.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Regulatory Affairs Specialist) 〈식약처〉

•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 · 심사, 생산 · 특허 등 의약품 관리 전반에 걸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의 적용 · 준수 등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 **(현황) 신약 연구 · 개발, 제품 상용화 등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의 기업수요는 높은 반면,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 · 양성 시스템은 부족**
  - 제약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으로 신약개발 ·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으로서는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법적 ·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
  - 현재의 제약기업 재직자 중심의 단발성(2일 내외) 민간 교육 체계로는 의약품 전주기의 종합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 배출 곤란

- **제약기업 재직자 및 제약분야 진출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의약품 규제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집중 실시***

  * 공모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교육 · 시험기관으로 지정위탁('15년 4.8억원)

  ㄴ 시간 : 약 100시간(3개월), 내용 : 임상 · 허가 · 제조 등 8개 영역 34개 과목, 교육생 : 450명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는 식약처장 명의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서' 교부**

  * '15년 인증시험 결과 : 295명 응시/40명 합격(합격기준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인증시험 성적우수자 중 비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기업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제약 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민간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신약개발 활성화, 해외 수출 증대 등**

  * 예산(억원/교육인원): ('14) 5.08/435 → ('15) 4.82/450 → ('16~) 지속추진

1. 정부육성 · 지원 신직업(13개)

3. 주택임대관리사 〈국토부〉

• 임차인 모집, 월세징수, 세금납부 등 관공서 출입, 임차인의 유지보수 요구 등 민원처리, 분쟁으로 인한 법적 처리 등 주택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대리하여 주택임대 관리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

- **(현황)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의 증가에 따라 주택임대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할해 주는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월세: ('11) 43.6만 건 → ('14) 60.1만 건 / 전세: ('11) 88.5만 건 → ('14) 86.6만 건

  • 임대업자가 주택을 직접 임대 ·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임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존재

  * 임대업자의 부담 요인('14.8월, 한국 리서치) : 임차인의 민원처리(69.6%), 월세 징수(47.7%), 임차인 모집(41.5%), 분쟁으로 인한 법적 처리(20.4%), 관공서 출입(19.4%) 등

  • 주택임대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응할 필요

  * ('12년) 일본은 2,300여개의 임대관리업체가 존재하고 미국도 1,500여개의 업체 운영

  * 우리나라는 '14.2.7 「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임대업자의 '관리' 측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신설

    ① 의무 등록(자기관리형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 ② 전문가 고용 ③ 보험 가입 의무화(자기관리형만 적용)

- **(방안)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관련 협회 설립 지원**

  •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사이의 분쟁 예방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표준 계약서를 마련('15.1.30), 지자체에 보급하여 활용 독려

  •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설립 지원

    ㄴ 협회는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주택임대관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택임대관리협업협회 설립인가 신청('15.10.2)이 접수되었으며,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보완 지시 → 보완사항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기대효과)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이 부분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종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직업 창출**

4. 레저선박시설(마리나)전문가 〈해수부〉

· 마리나 운영원 (Marina Operator)

· 레저선박 운항사 (Leisure Boat Operator)

· 레저선박 정비수리원 (Leisure Boat Maintenance & Repair Man)

- (마리나 운영원) 폰툰(선박 탑승을 돕기 위해 띄어놓는 부유체)과 육상 계류장 점검 및 유지 보수, 보트의 이동 및 계류, 이안 및 접안(부두 암벽에 붙고 떨어짐)을 통제하며, 보트의 안전 및 고객 서비스 제공
- (레저선박 운항사) 요트 · 보트 등의 항해사 및 기관사로 고용되어 레저선박을 운항하거나, 렌탈 등 대여업으로 이용되는 레저선박의 운항을 대행
- (레저선박 정비수리원) 마리나 시설, 보트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현황) 해양스포츠 · 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법규(레저선박 등의 운영 · 운항 · 정비 등) 부재 등으로 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인력 양성 또한 부족한 상황**

* 국내 요트 · 보트 보유척수 : ('07) 3,944척 → ('14) 12,985척/ 3.3배 증가요트 · 보트 면허 취득자수 : ('07)65,758명 → ('14)153,559명/ 2.3배 증가

• **(방안) 레저선박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레저선박 관련 사업의 법 · 제도적 기반 마련('15.7)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질적 관리 시행('15~)

  *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 · 계류업 등 마리나서비스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마리나항만법 개정('15.7월 시행)

  ** 마리나선박 대여업 17개소, 보관 · 계류업 3개소 등록('15.9월 기준)

-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 추가 및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확대('16~)

  * 매년 200명 이상 양성 목표

• **(기대효과) 신규일자리 창출 및 해양스포츠 · 레저산업 발전에 기여**

1. 정부육성 · 지원 신직업(13개)

5. 대체투자전문가 〈금융위(금융투자협회)〉

• 주로 기관 투자자에 고용되어 대체투자 자산의 발굴, 수익 분석, 위험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수익을 확보 * [대체투자] 공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유가 증권, 실물 자산 등에 투자

- **(현황) 해외 주요 연 · 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률 제고 및 투자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 목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 국가별 대체투자 비중 〉

	대체투자	주식	채권	기타
미국	15%	44%	37%	3%
캐나다	22%	41%	35%	2%
호주	26%	51%	15%	8%
한국(국민연금)	10%	32%	58%	0%

* 미국, 캐나다, 호주는 '14년 말 기준(출처: Towers watson)이며, 한국은 '15년 8월 기준(출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관투자자들은 수익형 부동산 등 일부 종목에 국한된 대체투자에만 집중
  * 대체투자 상품은 가치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 또한, 자체적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업무를 글로벌 컨설팅에 의존
  * 머서(Mercer) 투자자문 및 삼정 KPMG의 컨설팅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인력은 현재기준 최소 2배에서 7배까지 증원 필요

- **(방안) 대체투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체투자 전문인력 양성 확대**
  * '17년까지 1,000명의 대체투자 전문가 양성 계획
- 대체투자 관련 분야별 전략, 사례,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15~)
  * ('15년) 297명 참여 → ('16년) 400명 → ('17년) 400명
- **(기대효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대체투자 서비스의 해외 의존도 완화, 중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 운영 성과 개선에 기여**

6. 해양플랜트기본설계사(Offshore Plant Basic Engineer) 〈산업부〉

• 해양플랜트 기본설계는 프로젝트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엔지니어 역량에 따라 모든 공정 요건(Process Requirements)과 세부 사양(Specification) 등 프로젝트의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결정

- **(현황) 해양플랜트 시장 확대 및 관련 기술발전에 따라 설계 등 핵심직업군에 대한 시장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 해양플랜트 시장확대 전망 : ('13) 1,500억불 → ('30) 5,000억불

  **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수요전망(조선협회) : ('13)10,665명 → ('23) 19,900명

  - 해외 발주 프로젝트를 국내업체가 수주하더라도 기본설계 등 핵심분야는 대부분 해외 엔지니어링 기업이 수주하고 있는 실정

    * 선박건조 · 제작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 사정, 광구 미보유 등으로 인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본설계 경험 축적에 한계가 있음

  - '12년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190여개 기업 재직자 대상(연 평균 1,225명) 설계재교육 실시 중

    * '15년(4차년도) 현재 17개 과정 27회 848명 교육 중

- **(방안) 기본설계 교육과정을 재직자 대상으로 하여 해외 엔지니어링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 규모도 확대 추진('15: 1,400명 → '16: 1,600명)**

  * 기본설계는 설계경력 10~15년차 이상 경력의 설계엔지니어 담당 분야로서 · 상세설계 → 기본설계 · 기량향상을 위한 재직자 대상 교육 필요(산업계 요구 수준의 교육을 위해 예산지원 필요)

  - 조선분야 인적자원협의체 등 주요기업 협의체를 통해 관련 산업현장 직업군 수요파악* 후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

    * 조선업 관련협회의 자체 수요조사 실시, 조선해양산업인력 간담회('15.11월) 등

- **(기대효과)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분야 국내 일자리 창출 도모**

1. 정부육성 · 지원 신직업(13개)

7. 방재전문가(Emergency Management Director)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 전쟁, 기술적 재난 또는 인질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관리 활동을 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한 준비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

- **(현황) 미국은 재난안전관리전문가가 지방정부, 주정부, 병원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에 근무하며 재난과 위기를 통합적으로 조정**
  - 우리나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 인력은 많으나, 재난발생부터 수습 ·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전문가 부족
    – 국민안전처에서 '14년부터 2개 대학*을 선정 · 지원 등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작단계
      * 성균관대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광운대(재난안전관리전공)

- **(방안) 우선, 양성된 인력에 대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안전전문가 채용방안 마련('17~)
    * 공공기관 채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6년)
  -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선정 확대('16년까지 3개), 별도의 국가공인 자격을 신설하거나 외국 자격제도를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17~)

-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복지 수요 충족, 방재안전분야 학문적 정체성 확립, 공공 및 민간기관의 재난 관련 전문가 채용 증대**

8.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미래부 · 문체부〉

•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Youtube와 같은 광고기반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구독자 확보, 광고기반 플랫폼 사업자와의 광고 수익 공유를 통한 수익 창출

- **(현황) 1인 콘텐츠 제작은 취미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해외에서는 이를 통해 Youtube 등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사례 발생**
  * PewDiepie(퓨디파이)는 전세계 1위 Youtube 1인 제작자로 4천만 구독자 보유, 누적조회 약 90억 건, 연간수입 830억 원에 달함
  - 국내도 저비용 제작 콘텐츠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직업으로서 인식이 부족하고 수익모델 부족
    * 1인 제작자 〈대도서관〉은 약 3,500만원, 〈양띵〉은 4,000만원, 〈김이브〉는 약 8,000만원을 월 수익으로 창출

- **(방안) 창의적인 인재 발굴,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유통의 확산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확대**
  - (인재발굴) 콘텐츠 창작 공모전* 등을 통해 新한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1인 창작자 육성 추진('15~)
    * 청소년 대상 콘텐츠 창작 공모전 개최('15년 187건 접수, 17건 시상) * ('15년) 100팀(미래부 60팀, 문화부 40팀)의 크리에이터 발굴
  - (교육 및 인프라 지원)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크리에이터 지원센터 확대** 추진('15~)
    * (문화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15년, 169명)(미래부) 방송영상융합콘텐츠 멘토링(20명) 등
    ** 민간주도 2개소(CJ E&M DIATV 홍대스튜디오, 트레져헌터 서울스튜디오) 구축 완료, 정부지원 융합형 콘텐츠 창작자 지원센터 1개소 구축 예정('16년)
  - (글로벌 유통 지원) 포털, 방송사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TV창조채널'*을 통해 실험적 · 창의적 콘텐츠 확산 및 사업화 지원 강화('15~)
    * TV창조채널 : 1인 미디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글로벌 영상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기 위한 유통채널(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11개 채널 개설)
    – 크리에이터와 MCN(Multi Channel Network)을 매칭하여 유통 및 사업화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B2B(Business to Busines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16~)
      * '15년 미래부 선발 60팀 중 22팀을 선정하여 총 1.2억 원 지원

- **(기대효과) 1인 창작자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 발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에 기여**

1. 정부육성 · 지원 신직업(13개)

9. 진로체험코디네이터 〈교육부〉

• 체험처 발굴 · 관리,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체험처–학교 연결, 체험 일정 관리 및 멘토 섭외 등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현황)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및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에 따라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체험처의 발굴 · 관리 필요**
  -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 만족도 향상 및 현장의 공감대 확산으로 '16년 중학교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자유학기제 운영 : ('13) 42교 → ('14) 811교 → ('15) 2,551교 → ('16) 3,204교(전면시행)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진로체험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진로교사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14년, 학교진로교육지표)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중학교 50.1%, 고등학교 38.7%)

- **(방안)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직업체험코디네이터의 활동 저변 확대**
  - (공공 서비스 제공) 교육청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직업 체험처 확보 및 체험 지원
    * 센터 설립 현황 : ('15.3) 67개 → ('15.8) 182개 → ('15.12, 예정) 200개
      ↳ (기능) 인력 활용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컨설팅 제공, 업무 매뉴얼 보급, 홍보를 위한 리플렛 발간 등 추진
  - (기업참여 확대) 기업 · 사업장의 일터제공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경제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직업체험 캠페인 전개, 기업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검토

- **(기대효과) 직업체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직업체험 일터제공 참여 확대**

10. 직무능력평가사(Skill Assessor/Competency Assessor/QCF(NVQ) Assessor) 〈고용부〉

• 한 개인이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증빙자료를 수집, 이를 통해 정규교육기관, 훈련기관, 사업장 등에서 직업훈련, 자격 등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훈련생을 지원하고 평가

• (현황) 호주, 영국, 미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평가사 자격인증제*를 운영하여 개인별 직무능력 평가, 맞춤형 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Australia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등이 인증

- 우리나라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이 확산되면서 교육훈련생의 유형 ·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훈련과정과 매칭 시켜주는 직무능력평가사 도입이 필요

  * NCS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를 국가가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무명세서이자 인재양성지침서 ⇒ '17년까지 전 훈련과정에 NCS 적용 추진

• (방안) 기존 직업훈련교사 · 기업현장교수 등 대상으로 양성체계 수립('16년)

- 전문가 연구*, 공개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무능력평가사 역할 · 직무 · 자격 등 제도화 방안 마련 추진

  *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역량평가사 양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15년 완료)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직무능력평가 자격제도 신설 검토

  * (폴리텍) NCS기반 내부역량평가사 양성과정 운영, (한기대) NCS기반 평가역량 강화 과정 시범실시 중

• (기대효과) NCS에 기반한 교육 훈련,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NCS 활용 확산을 통해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기여